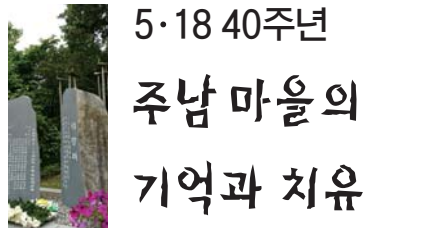


모내기 철만 되면 그날 죽음의 그림자가 목을 조여온다



5·18 40주년 주남 마을의 기억과 치유

〈상〉40년의 아픔 간직한 마을

40년의 세월 동안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 있다.

1980년 5월, 일주일 간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힌 자연부락마을이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곳이다. 민간인 집단학살과 암매장의 현장이자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단서가 될 장소, 광주시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주남마을은 40년 동안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거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긴 세월 동안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고, 그 과정을 일상에 녹여 가고 있다.

광주일보에는 올해 5·18항쟁 40주년을 맞아, '생활 속 5·18'과 '5·18의 일상화'로 전환해야 할 광주시민의 향후 10년을 주남마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인 7·11공수여단이 평화롭던 '주남마을'에 들어닥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계엄군의 시위대에 대한 살상과 폭력 진압에 광주 시민들이 대거 전남도청 앞에 모이자, 급파된 7·11공수여단은 21일 오

계엄군, 버스 무차별 총격
생존자 2명 뒷산 끌고가 사살
22명 주검 아직도 행방 묘연
암매장 등 진상규명 필요

후 1시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을 시작했다. 집단 발포 이후 광주의 참상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7·11공수여단은 시외곽으로 철수해 주남마을과 녹동마을에 주둔하면서 광주 봉쇄작전에 들어갔다.

1995년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1980년 5월 23일 오전 주남마을에 주둔해있던 11공수여단 계엄군이 광주시 동구 지원동 광주-화순 간 15번 국도를 지나가던 25인승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승객 1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계엄군은 부상자 3명 중 2명(채수길·양민석씨로 판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 후 암매장했다. 일부 시신에선 대검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다. 유일한 생존자 홍금수(여·당시 17세)씨는 다행히 헬기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버스는 시신과 함께 강가에 추락시켜 이 사건을 단순 추락사고로 처리했다.

주남마을 야산에 암매장된 채씨의 주검은 일주일 뒤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주남마을 버스총격사건은 1995년 검찰 조사와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도 한건의 총격사건으로 결론지었지만, 이외에 유사사건이 몇건 더 있다는 증언이 계속됐다.

5·18연구자들은 같은날 4건의 버스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전투병과교육사령부가 작성한 '작전상황일지'에는 '5월 23일 오후 3시30분 광주 소재 폭도 50명(버스 1대) 군부대 기습 기도. 군부대(11공수) 반격소탕. 생포 3명(부상 2명). 사살 17명'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유족과 주남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서 다른 버스총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내놓았으며, 2번의 버스 총격을 직접 확인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주남마을은 유력한 암매장 장소로도 꼽히는 곳이다. 피해자 총 33명 중 신원이 확인된 숫자는 11명에 불과하다. 생존자 홍금수씨 1명과 10구(고영자·김남석·김윤수·김춘례·박현숙·백대환·양민석·장재철·채수길·황호걸 등)의 주검을 제외하면 22명의 주검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주남마을 버스총격사건은 전교사 상황일지 기록에 맞춰 사고 시간과 주검 숫자가 맞춰졌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주남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주둔해있는 계엄군의 총소리와 탱크소리, 헬기소리에 집 안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집 밖으로 잠깐 나왔다 하면 계엄군의 총부리가 향해왔기 때문이다. 초파일 시기에 모내기가 한창 때였지만 농사준비는 커녕 집 밖에 드리는 죽음의 그림자는 목을 조여왔으며, 그 공포는 현재까지도 주민들을 억누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버스 총격 형상화 한 정류장 1980년 5월23일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들이 사망한 '버스 총격사건'을 형상화해 세운 주남마을 버스정류장에서 12일 마을 주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701곳·전남 27곳, 유흥시설 2주간 영업 못한다

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반 구상권 청구 등 조치

'방역모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유흥시설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은 물론 자칫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차질 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유흥업소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엔 막대한 액수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감성주점 2곳, 클럽 16곳, 유흥

주점 673곳, 콜라텍 10곳 등 모두 701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해당 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 시장은 "서울, 경기를 포함해 10개 광역단체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이들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를 부담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 시장은 "만약 클럽 방문자 중 1명이라도 지역 집단 감염 전파자가 될 경우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 무너지게 된다"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 시설 이용을 다시 제한해야 하고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행사의 재조정도 불가피해진다"고 우려했다.

전남도도 도내 클럽, 콜라텍,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총합 27곳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들 시설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금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또 4월 29일부터 5월 8일 새벽까지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강, 켄,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힙)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을 방문한 지역민들에게 관할 보건소에 방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만약 대상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방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 달라"

3차 추경예산도 논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논 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리길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

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형 뉴딜 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과감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도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심한 논의를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전국 아리파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BRO&T!PS

REAL TIPS FOR BRO
NEVER OILY
ALL IN ONE